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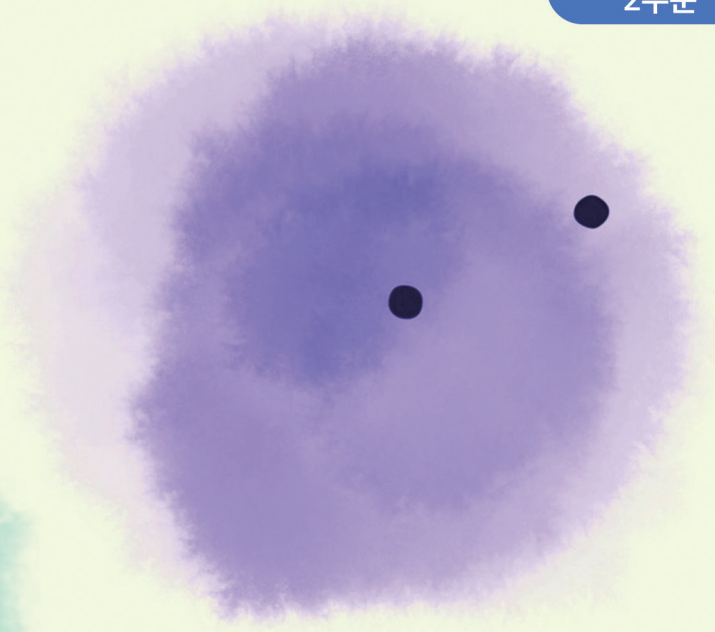


인천임기그림책

2수준

하늘이와 땅땅이의 모험

열려라, 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하늘이와 땅땅이는
보물을 찾아 나섰어요.



"드디어,
마지막 문!"

"어떻게
열어야 하지?"



"지도를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 가지가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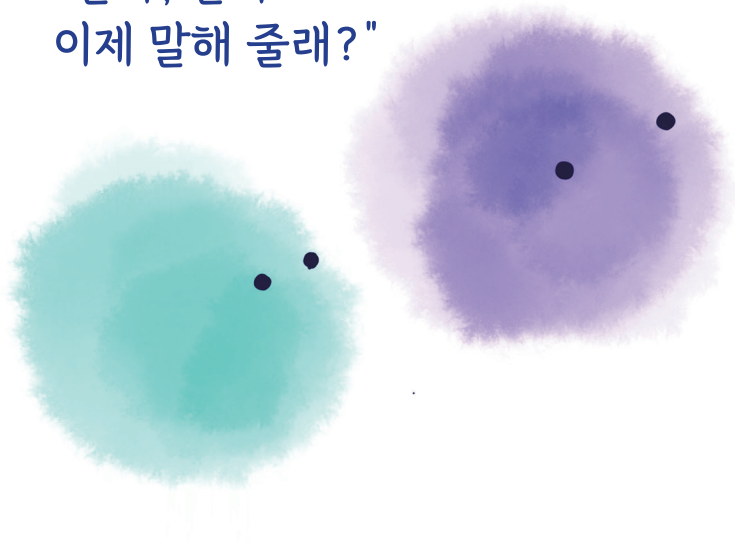
누구에게 물어볼까?
말에게 물어볼까?

"말아, 말아!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니?"



"우리와 대문 놀이하면 알려 줄게."

"말아, 말아!
이제 말해 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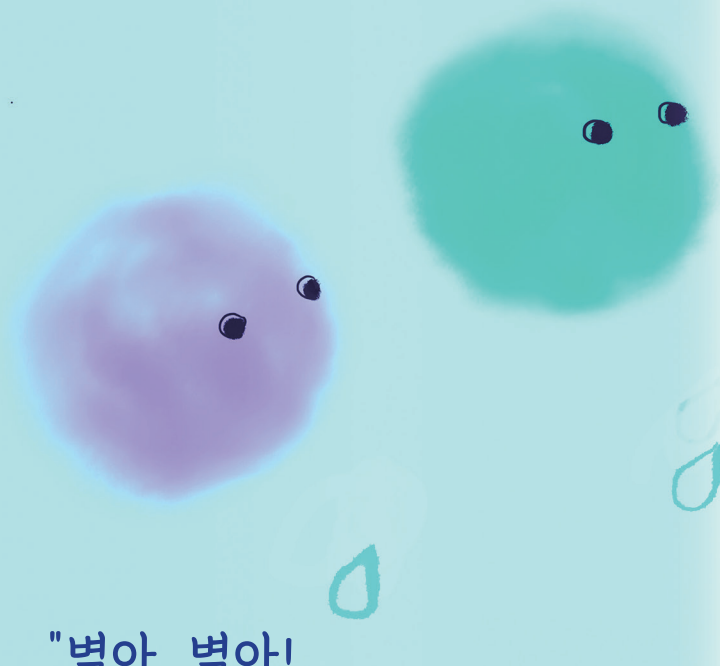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면
알 수 있을 거야. "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ㄴ ㄴ ㄴ



"앗! 아기 별이다."



"별아, 별아!
왜 울고 있니?"

"엄마 별이
보고 싶어."



하늘이와 땅땅이는
아기별이 엄마 별에
달을 수 있게
바람을 불어주었어요.



하늘이와 땅땅이는
별과 함께 놀았어요.



반 짹 ♪



반 짹 ♪

작

별 ♪





"하늘아, 파란 풍선이
올라오고 있어."

"별들아, 안녕~"



파란하늘 ♪ 파란하늘 꿈이 ㄴ

"세 가지 열쇠를 찾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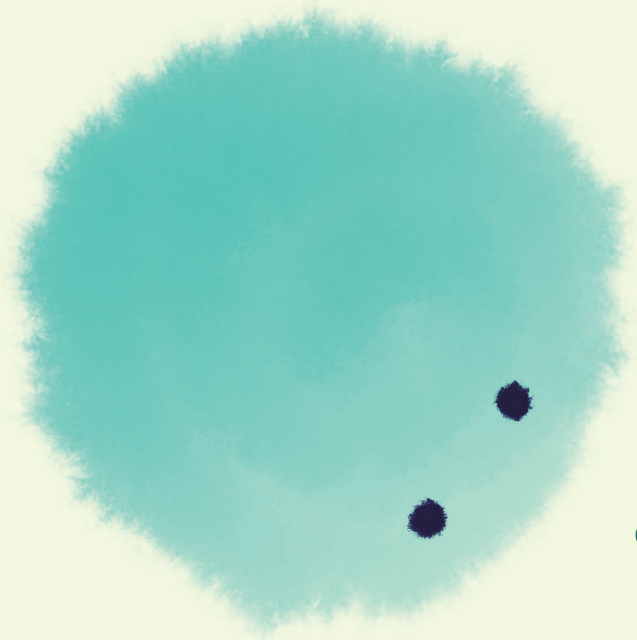
"우리가 지도에서
무엇을 찾았지?"







문이 열리고,
하늘이와 땅땅이가 발견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ㅁ, ㅂ, ㅍ지도 하시는 선생님들께

- <하늘이와 땅땅이의 모험-열려라 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이야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천지인(天地人) 중 하늘과 땅의 의미를 담아 주인공의 이름을 하늘이와 땅땅이로 하였습니다.
- 문자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그 문자 하나를 아는 것에 그치지만 문자가 형성된 과정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로 세상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담긴 자음과 모음 각 음소의 느낌을 알고 지도한다면 한글에 담겨 있는 정신을 살리는 한글 교육이 될 것입니다.
- ‘ㅁ’, ‘ㅂ’, ‘ㅍ’는 입술소리입니다. 머금고 모으며 종합하는 기운은 ‘ㅁ’에, 부풀어 오르고 수직 운동의 기운은 ‘ㅂ’에, 퍼지고 평평한 수평운동의 기운은 ‘ㅍ’에 있습니다.
- 입술소리들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았다 열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문을 열기 위한 여행 속에서 ‘ㅁ’, ‘ㅂ’, ‘ㅍ’가 들어간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 ‘ㅁ’이 들어간 낱말 - 문, 보물, 말, 대문놀이, 무지개 다리- 를 찾아 본 후 대문놀이를 하면서 ‘ㅁ’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 ‘ㅂ’을 만날 때도 울고 있는 아기별을 도와주면서 별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별은 빛나는 것으로 ‘ㅂ’의 결을 잘 살려주는 낱말입니다. 이 때 ‘반짝 반짝 작은 별’ 노래를 아이들과 손동작을 하면서 익힌다면 밝게 보이는 ‘ㅂ’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파란 풍선을 타고 내려가는 길에 부르는 ‘아기 염소’ 노래 가사에서 ‘ㅍ’이 들어간 낱말들 - 파란하늘, 푸른 언덕, 풀, 피어나다, 폴짝폴짝 - 을 찾아보며 몸으로 표현해 본다면 ‘ㅍ’의 결을 오롯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세 가지 열쇠가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하늘이와 땅땅이가 여행한 순서를 되짚어 보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의미 있는 ‘ㅁ’, ‘ㅂ’, ‘ㅍ’수업이 될 것입니다.
- 하루에 자음 하나씩 지도할 때는 해당하는 음소까지만 읽어주고, 입술소리를 모두 배우고 난 후에는 이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면서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대문놀이 가사 >

문지기 문지기 문 열러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러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러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러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러라 덜커덩 땡 열렸다

< 반짝반짝 작은 별 > 가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 아기 염소 > 가사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울상을 짓다가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폴짝폴짝 쿵쿵쿵 흔든흔든 쿵쿵쿵 신나는 아기 염소들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

자문위원장

이영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자문위원

유충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구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연구진

김태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해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검토진

박은숙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최혜봉 인천한누리학교

김대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차의진 부흥중학교

집필진

이수현 인천갈월초등학교
이정현 인천문학초등학교
황혜진 인천명현초등학교

이세나 인천만석초등학교
정남순 인천동수초등학교

다국어 번역

김 사 랑 인천한누리학교(러시아어)
뚜엣마이 인천한누리학교(베트남어)
이 희 연 인천남동고등학교(영어)

박디나라 인천한누리학교(영어)
장 향 화 인천한누리학교(중국어)

저작권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